

휴켄스, 내화도료 시장 진출!

IFRS와 전략적 제휴 체결 ... 시장점유율 20-30% 기대

남해화학에서 분리독립한 정밀화학기업 휴켄스(대표 이종석)가 내화도료와 바이오 제품 등 신규사업에 본격 진출한다.

휴켄스는 12월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내화도료 전문기업 IFRS(International Fire Resistant Systems)와 내화도료 <Ff(Firefree)88>의 한국, 일본, 중국, 타이완 등 동아시아지역 독점판매와 기술이전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.

<Ff88>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기능성 특수 페인트로 국내 건축법에는 모든 철구조물에 내화도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.

내화도료의 국내시장은 400억원으로 EPS패널 등 파생시장까지 합치면 1조에 육박하고 있다.

휴켄스는 <Ff88>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로 전체시장의 20-30% 정도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또 미국의 바이오기업인 J.H Biotech과 식물성장촉진제인 <휴믹산> 등에 대한 독점공급 계약도 체결했다.

<휴믹산>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농가에 널리 보급해 친환경농업에 적용할 계획이다.

2002년 남해화학에서 기업분할 된 휴켄스는 DNT, 질산, 초안 등 주요 제품을 국내 화약공장 및 화학기업은 물론 DuPont을 비롯한 세계기업에 수출하고 있으며,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한국BASF에 질산을 독점 공급기로 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12/ 24>